

## 베드로전서 강해

### 아름다운 순종 ( 벵전 2:18~25 )

반태호 목사 / 2004년 06월

살아가다보면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난 주에 있었던 남북의 정상회담이 만나서 역사적인 사건이 그런 일이었습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난지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50년이라는 희년의 해에 남북의 화해가 시작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나 간단한 일을 그동안 못해왔던 것에 대해서 허탈한 기분도 듭니다. 그동안 막혀있던 것은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막혀있는 것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사회적인 장벽, 신분의 장벽이 높게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노예제도는 당시의 성도들이 견디기 힘들어 하던 큰 문제였습니다. 당시 노예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던 로마에서 사람들은 여러가지 어려운 환경 때문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무려 6천만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인구의 1/3이 노예였던 셈입니다. 노예는 노동을 해서 로마를 먹여 살려야 했던 계급이었지만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말하는 노새가 있고, 말하지 못하는 노새가 있다'라며 노예를 '말하는 노새'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무런 권리 없이 살아야 했던 노예에게는 주인의 생각이 곧 법으로 통용되었습니다.

#### 2천년 전 로마의 노예제도

초대교회에도 노예출신이 많았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성도가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노예거나 주인이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형제자매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히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신약성경에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 때문에 기록되었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전도를 했는데 알고 보니 그는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주인은 바울이 잘 아는 사람 빌레몬이었습니다. 이 빌레몬의 가정은 골로새교회가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그리스도안에서 변화되었다. 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유익한 자다. 이 사람이 당신을 대신해서 나를 잘 섬겨주었다. 그러니 이 사람을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여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종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0절부터 24절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

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라고 했습니다.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제는 운명적으로 어쩔 수 없이 종살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세상에서는 종으로서 그 자리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노예나 종은 일을 아무리 잘해도 칭찬을 받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잘못할 때는 큰일날듯이 혼나게 되지만 잘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깁니다. 특별히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2천년 전에도 어떤 주인들은 노예를 잘 돌보고, 자녀의 교육을 맡기기도 하고, 때가 되면 자유를 주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까다로운 주인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좋은 주인의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을 때 예수님께 나아와서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종이 병들었다고 찾아온 이 백부장에게 감동하며 병을 고쳐줍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주인은 드물었고 대부분의 경우 종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많은 날을 누군가를 섬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까다로운 주인을 만났을 때 성경은 '두려운 마음으로 순복하라'고 말합니다. 잘해주는 주인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합니다.

###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항의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항거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 않을 때에도 곱게 순종하고 싶어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의 이 사환에 대한 교훈은 우리를 향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고 섬겨야 합니다. 그러다보면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형편 없는 사람을 만날 때도 많고,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맞서고 싶은 기분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좋은 마음으로 순복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는 주로 일 때문이 아니라 관계 때문에 비롯됩니다. 심지어 교회안에서도 공정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곧잘 이용당하고 버림받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올바른 일을 하고도 나쁜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는 아픔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섬겨야 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까다로운 주인을 섬길 때 애매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공정한 대접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미워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박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미워하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대접받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를 해서는 안됩니다.

말도 안되는 억울한 일에 있어서도 순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것은 상황의 문제라기 보다는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방이 까다롭든지 관용이 있는 사람이든지에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대우하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반응하면 결국에 망가지는 사람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를 나쁘게 대우하는 사람에게 우리 또한 나쁘게 대우하고 좋은 사람에게 좋게 반응하면 공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렇게 하다보면 오히려 자신이 망가지게 됩니다. 상대방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사무엘은 엘리가 비록 타락한 제사장일지라도 순복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불의한 권력이라할지라도 끝까지 순복합니다. 다윗이 순복해야 했던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부음 받고 세움받은 사울을 대신할 왕이었지만 끝까지 사울에게 순복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지금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사람들이 보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하에서도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주인의 자리에 있을 때도 아래 사람에게 관용하고 잘 대해야 하고, 종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순복해야 합니다. 이런 태도는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금이나 은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 없고, 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의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사람에게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3종류의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번째가 '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대부분의 고난이 이것에 해당합니다. 고난의 대부분은 우리의 죄나 연약함 때문에 당하게 됩니다. 그럴기 때문에 이것은 회개해야 할 문제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사랑받고 미움받는 것은 자기 탓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옛말에 '매도 벌어서 맞고, 욱도 벌어서 먹는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질병도 그렇다고 합니다. 병의 대부분은 환자 본인 때문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바르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 아무 음식이나 다 먹는 그런 절제 없는 생활에서 질병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죄로 인한 고난을 철저히 회개하면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 죄로 인한 고난과 애매한 고난

두번째는 '애매한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나 애매한 고난의 실상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뿐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억울하고 애매한 일을 당하게 하신 뜻이 있습니다.

구 소련의 유명한 작가이자 반체제 인사인 알렉산더 솔제니친은 유년시절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신앙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반체제 인사로 감옥에 갇혔고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유대교 의사로부터 병으로 고생할 때 정성껏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저항감과 억울함에 젖어있던 솔제니친에게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감옥에 온 의사는 '이 세상에서 이유없이 당하는 고난은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의식속에 있는 그의 일부를 흔들여 깨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자신에게 원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적시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상대방에게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정결케 하십시오.

세번째는 선한 일을 하다가 상을 받기는 커녕 고난으로 돌아오는 경우입니다. 사랑과 선을 베풀었는데 배신과 부당함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경우도 자녀로부터 그런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는 것은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 고난은 자진해서 당하는 고난인 셈입니다. 그러나 이 렇게 당하는 고난이 어리석은 고난은 아닙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 복이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됨이며 복을 쌓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선을 베풀고 사랑한 것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작은 선행 하나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상으로 복 주십니다.

우리가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순복할 때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실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며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주 때문에 고난당하는 일, 믿음을 지키는 일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에는 동의하지만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본이 필요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한번도 가보지 못한 길, 특별히 어려워 보이는 길을 가려는데 누군가 앞서 간 사람이 있으면 안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간 발자취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일이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는 사실에 본을 보이셨습니다. 주님을 쫓아가면 그 길이 좁고, 어렵고, 불가능한 길처럼 보여도 그곳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주를 따라 성긴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고난받고 특별히 어려울 때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사실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고난을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죄라고는 없으셨습니다. 정결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며 아름답게 사셨던 분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꾀사도 없으시며

그는 죄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입으로조차도 죄를 짓지 않았습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힘이 없다면 입술로라도 죄를 짓고맙니다. 주인한테 맞서지는 못해도 욕설을 퍼붓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입술로 죄를 짓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정말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매맞는 일보다 더 힘든 것이 모욕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보면 욕설을 퍼부어주고 싶은 순간이 많습니다. 그러나 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대놓고도 말고 뒤에서 그러지도 마십시오. 또 위협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흔히 '두고 보자'라고 합니다. 만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두고 보자'라고 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때까지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은 헛수고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실 때 욕하지도 위협하지도 않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의 모범

유대인들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지봉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너무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자 '하나님 제발 저들을 보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력적인 기도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공의의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언젠가는 모든 것이 낱알이 드러날 그날이 올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고난 당할 때 믿는 것입니다. 참된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는 순종하고 믿는 것이 간단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할 때 진정한 순종과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억울하고 고난당한 일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과 억울한 일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죄인이었습니다. 남에게 억울한 일을 가하고, 부당한 일을 했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를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가 시켜서도 아니고 가롯 유다가 배신을 해서 고난을 당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고난을 택하신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믿음을 지키는 데도 고난을 당하는 것에는 선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난은 주님 앞에 갈 때 상급과 축복이 될 것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도 전에는 죄를 짓고 남에게 억울한 일을 했지만 주께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보고 십자가 옆에 있던 백부장은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메달렸던 죄수는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구원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도 임합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복수하지 않고, 위협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대적하던 이들이 돌아와 주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더 가까이 계십니다. 원망과 복수와 저주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목자되고 감독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래서 맞서고 싶을 때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위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소서.  
그럴 때 그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생명과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출처 : 온누리신문